

독자님의 소중한 의견이 더 나은 산업보건을 만듭니다

월간 <K-산업보건>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K-산업보건>을 읽은 소감과 궁금한 점을 알려주세요.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참여 방법

스마트폰 QR코드 인식 후 의견 남기기



참여 기간

2023년 10월 20일까지

당첨 선물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총 10명)



9월호 독자평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실시하는 사업장으로 <K-산업보건>이 보건교육 주제 선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9월 주제는 '산업보건 Q&A'의 특수건강진단을 참고했는데요. 앞으로도 사업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을 담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디에스단석 정소록

<K-산업보건>을 통해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이란 곳을 처음 알게 됐어요. 우리 민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니, 바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긴 추석 연휴 가족들과 방문해 우리 소리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애독자 전기홍

지인이 폐기물 소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테마를 통해 환경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위험한 근무환경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곳곳 위태로운 근무환경을 환기해 건강권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주세요.

이경인(동방)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의 '목적자에서 피고인으로' 칼럼을 열독했습니다. '왜 노동자에게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가?'는 물음이 한동안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중대재해 구조적 문제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애독자 EHS team